

신용평가 점수제 개편...240만명 이자 절감

88만명 신용 점수·34만명 신용 등급 상승 효과

장·단기 연체 기준 완화...13만명 연체구려 벗어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평균 1%포인트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한다. 사실상 '같은 신용도'로 볼 수 없는 300만~1000만명이 한 등급에 묶이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의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의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대출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가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큰데, 현재는 캐피탈·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13만6000명은 등급이 오른다. 결론적으로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34만명의 신용등급도 오르는 효과가 나온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한

면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데, 이 기준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뀐다. 단기 연체(10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은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장기 연체(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록 기준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 8000명 중 6만3000명이,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6만4000명 등 총 12만7000명의 등록이 해지된다. 연체금을 갚아도 단기·상거래 연체는 3년간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한다.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장기연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보가 남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 대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활용토록 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해선 비(非) 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신용정보사(CB)에 등록된 4515만명 중 1107만명이 금융 이력 부족자다. 평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4~6등급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물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이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 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린다"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정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CB사나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도 보장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7.74 (-30.45) ↑ 금리 (국고채 3년) 2.30% (+0.02)
↓ 코스닥 920.96 (-6.09) ↑ 환율 (USD) 1073.60원 (+8.00)

가상화폐 실명제 첫 날

실명 확인 접속자 몰려 대기 길어져 확인서 없이 계좌 만드는 법 공유도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접속이 몰려 확인절차를 위한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또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없이도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날부터 실명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실명확인인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한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확인절차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업비트에서 실명인증을 하면 업비트가 해당 고객의 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보낸사람에 인증번호 세 자리를 함께 보낸다. 실명인증을 하려는 사람은 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실명인증을 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각종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업비트에서 기업은행에 1원을 보냈다는데 안 들어온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빗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이 아닌 지역농협의 계좌로

실명인증을 하려다 안돼 항의하는 고객도 있었다.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지역농협이 아닌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농협은행과 상호금융인 지역농협의 차이를 잘 몰라 오해가 생긴 것이다. 주부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 금융목적 확인이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계좌를 만드는 법을 찾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필요한 탓에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계좌를 되살리는 투자자도 있었다. 아이디 'ppin* * * *'는 "계좌 개설하러 갔는데 오래된 계좌가 있어 은행에서 살려줬다"며 "가상화폐로 짜증이 나는 요즘인데 잔고에 3만원 정도 있어 그날 좀 진정이 됐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는 실명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법인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다단계 형태로 투자가 진행돼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래 내역이 투명해지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시제품 길잡이 중기부 '디렉토리북' 발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줄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지원기관과 대학 정보들을 한데 묶은 디렉토리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20개 대학·연구소에서 갖추고 있는 3D프린터 등 105종의 장비와 35명의 전문가 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작하려는 시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품 개발의 빠른 성공을 돕게 된다. 예를 들어 3D프린팅제품에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금속재질은 생체의료부품센터에서, 단단한 나일론 재질은 광주전남청에서, 신발패드와 같은 고무재질은 아이플렉스(IPLX)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청은 책자에 수록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의 많은 창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배포되는 디렉토리북이 적정기관과 전문가를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명인의 한과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한 '전남 6차산업 특별전'에서 직원들이 보성 이금숙 장인의 정통장과 안복자 명인의 한과를 선보이고 있다. 특별전은 다음달 14일 까지 진행된다.

김영란법 개정에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불티’

과일 151%·축산 125%↑...5만~10만원선 매출 전년비 41%↑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된 지난 한 달간(12월 28일~1월 28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5만~10만원 선 체 선물세트의 매출이 작년 설과 비교해 40.9%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5만~10만원

선선 선물세트는 같은 기간 매출이 202.3% 증가,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이었던 작년 설의 경우 5만~10만원 세트 매출이 26.2% 감소했고, 설 선물세트 전체 매출은 4.8% 감소했다. 올해 이마트는 5만~10만원대 상품들의 물량을 지난 설과 비교해 20% 늘렸다. 변경된 선물 상한선을 겨냥해 올해 출

시된 '피코코 제주 흑한우 2호'(9만9200원) 세트가 이미 소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과일세트 매출은 150.7% 증가했다. 축산과 수산세트도 각각 125.1%와 73.5% 증가했다.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와 주류, 커피 세트 역시 2배 이상 매출이 늘어 사전예약 전체 매출은 7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수출기업 동남아 시장개척 지원

중기진흥공단 내달 2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본부장 최영환)는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장개척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의 광주·전남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다. 참가 신청 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시장성 평가 및 광주·전남의 수출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현지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담 주선, 통역배치 및 왕복항공료(50~70%)를 지원받는다. 다만 여행사 보험과 현지 체재비는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시장개척단은 3월 11~17일 동남아 3개 지역(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상식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은 수출상담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사후관리지원, 글로벌 진출자금, 아시아하이웨이 등 수출마케팅사업, 인력지원사업 등 중진공의 다양한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장개척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170513P@sbc.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69-3051.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집진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063-835-4771